

지방도시의 지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학(學)」의 역할

_ 우베(宇部)시 와카모노(若者) 크리에이티브 컨테이너

New Attempt for Regional Regeneration and Academic Role in
Local City _ Youth Creative Container Ube(YCCU), Yamaguchi Pref

글. 송준환 Song, Jun-hwan
야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최근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자가용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지방중심시가지의 쇠퇴와 교외로의 스프롤화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위한 「컴팩트 시티·플러스·네트워크」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기능의 집약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2014년에는 도시재생특별장치법의 개정에 따라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¹⁾ 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6월 현재, 348개의 지자체가 계획책정을 완료했고, 전국적으로도 계획을 책정하는 시정촌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도심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을 설정하여 교외로 퍼져있는 인구를 중장기적으로 해당구역 내로 유도해 나가게 된다. 이때, 주요 「도심기능유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시정촌의 중심시가지를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인가 또한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인국 17만의 작은 지방도시인 야마구치(山口) 현 우베(宇部)시의 중심시가지재생과 와카모노(若者) 크리에이티브 컨테이너(Youth Creative Container Ube, 이하 YCCU)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베시 추오초(中央町)지구는 한때 공업도시의 배후지로서 변화했던 곳이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모터

1) http://www.mlit.go.jp/en/toshi/city_plan/compactcity_network2.html



그림 1) 잔디광장과 YCCU의 전경 및 내부모습

리제이션(Motorization)에 따라 상점가의 쇠퇴와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최초의 샷타가이(シャッター街)²⁾라고 불리는 이 곳 추오초 지구에 2016년 9월, 마을만들기와 교류활동의 거점시설로서 390제곱미터 정도의 자그마한 잔디광장과 4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다세대 교류스페이스가 오픈했다. 4개의 컨테이너는 2개씩 나누어 배치하여 카페와 필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YCCU로 구성되어 있다.

■ YCCU의 설립배경

우베시에서는 「우베시 활기있는 에코마을계획(宇部市にぎわいエコまち計画, 2015)」, 「우베시 지역 활력재생계획(宇部市まちなか活力再生計画, 2015)」을 책정해 추오초 지구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과 육아세대의 거주촉진과 생활 지원기능 및 창업기능을 도입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베시 지역 활력재생계획」 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서 차세대를 담당해 나갈 젊은이들의 제안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거점시설이 제안되었다. 이 시설을 통해 「공(公)」·「민(民)」·「학(民)」의 연계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되, 중심시가지의 활력있는 마을의 재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안, 코디네이터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2) 상점 또는 사무소가 폐점하여 셔터(문 앞에 내리는 철제 덧문)가 닫힌 상태가 가로변을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쇠퇴한 상점가를 지칭한다.



그림 2) 잔디광장 이벤트 및 학생들의 가로디자인 워크숍 모습

이러한 계획과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필자를 비롯한 야마구치대학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연구실이 주축이 되어 2015년 11월부터 약 2년간 10회에 걸친 「지역재생미팅(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 대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야마구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와 다세대·이업종의 교류와 연계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YCCU가 개설됐다.

■ YCCU의 목적과 지역재생을 위한 활동

우베시의 「공」·「민」·「학」의 연계체제를 구축해나갈 실험적 준비단계로서 추오초를 기점으로 한다. YCCU는 시민과 행정, 기업 그리고 대학이 마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갈 하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YCCU의 가장 큰 목적이며, 이를 위한 각종 사회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역 마을재생활동에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빈집과 빈점포 등의 부동산 관리 및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4월에 설립된 니기wai 우베 주식회사(にぎわい宇部株式会社)와 우베시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변의 민간개발 유도과 효율적인 공공사업의 투자를 위해 새롭게 조성될 가로공간을 야마구치대학의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계획(안)을 바탕으로 검토회를 실시했다. 지역의 젊은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의 장으로서 YCCU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2)

잔디광장이라는 매력적인 공간을 우베시의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YCCU와 함께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는 포레포레 카페와 연계했다. 잔디광장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우베 시민들이 중심시가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발신을 위해 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2017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오픈한 YCCU는 2개의 컨테이너를 합친 형태로 약 30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공간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프리 스페이스(free space)로서 야마구치대학의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 연구실 학생들이 상주하면서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우베시로부터의 연구위탁을 통한 시설관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1)

이러한 지역 마을만들기 활동을 위한 지역거점시설은 크게 다음의 3가지 기능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를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새로운 마을만들기와 관련되는 「연구·제안」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
- ② 이를 기반으로 다주체가 연계해 「시책화·사업화」를 기획/조정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
- ③ 이를 시민과 사회로 「발신」하고, 「참여」와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모션(Promotion) 기능”

지역재생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의 해결과제는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라 해결책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시민참여·지역주도형 마을만들기는 불가결하며, 지역고유의 특성에 맞는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공」·「민」·「학」의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개인과 조직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함께 협동해 나갈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요구되는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의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은 새로운 도시계획 및 디자인 기술과 수법을 적극적으로 마을에 적용하여 피드백을 실시하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행정과 지역주민 및 민간 기업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상호간에 유연하게 연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와카모노크리에이티브 컨테이너(YCCU)홈페이지 : www.yccu.place
2. 지역재생을 위한 워크숍 활동레포트 및 관련자료 웹사이트 : http://www.city.ube.yamaguchi.jp/machizukuri/toshikeikaku/chuushinshigaichi/machinaka_saisei_meeting.html